목포 원도심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항이 미래 원도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30년 전인 1988년 목포 북항의 모습(왼쪽)과 현재의 북항 모습. 〈목포시 제공〉

원도심의 미래 '목포 북항'이 뜬다

배후부지 39만여㎡ 늘고 씨푸드 타운·노을공원 들어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 해양관광 중심지 발돋움

목포 원도심 대부분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항만이 유일하게 발전을 거듭해 미래 원도심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항계 내 북항·내항·남항·대불항·신항 등 5대항 가운데 최근 5년 새 북항권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명실공히 먹을거리·볼거리·즐길 거리가 한 곳에 어우러진 해양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전국 무역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 북항 특화 개발로 목포시의 지도까지 바꿔 놓았다. 늘어난 북항 배후부지 땅만 총 39만5000㎡에 달한다. 무려 50개의 축구장(FIFA 기준)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북항의 변화는 2007년 북항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목포대교가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수산식품지원센터가 2011년 완공됐고, 2012년 해양수산복합 센터와 2016년 씨-푸드 타운까지 문을 열면서 이 일대가 해양수산클러스터로 부상했다. 여기에 2014년 친수 문화공간인 노을공원까지 조성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제2의 평화광장'으로 자리매김 됐다.

북항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해지방해양경비 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장이 연내 완공되고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산하 함정관리소 역시 올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까지 서해 어업관리단 이전과 목포수협도 내년 북항 배후부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북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속 앓이를 해오던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북항권역 개발이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해양수산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 수치로 본 북항 인구(2016년 말)는 1만 499명(남자가 5262명, 여자 5237명)이고, 주택은 총 5028세대로 이 가운데 아파트만 2462세대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소식지 눈길

관 주도 탈피 쌍방향 제작
주부 명예기자 등 참여

목포시가 '시정소식지'와 매월 반상회보로 발행해 온 '해맑은 목포소식지'를 통합해 새로운 '목포시정 소식지'를 선보인다.

특히 이달부터 발행되는 목포시정 소식지(연 4회)는 그동안 관 주도로 발행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작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목포시는 7일 "기존 소식지의 순기능은 살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홍보창구로 활용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으로 제작되는 시정소식지는 목포시 SNS 직장동호회 '알리Go! 목포Go!' 20명과 주부 명예기자 29명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주부 명예기자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식지에는 시정시책, 주요행사, 생활정보, 의정소식, 동별 소식, 목포 볼거리 등과 함께 시민 참여 분야로 목포와 관련된 사진이나 시·수필 등 문학작품, 캘리그라피, 웹툰, 칼럼 등이 수록된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게 될 소식지는 책자(10절 국배판) 형태의 56페이지 분량으로 3만600부(장애인용 점자오디오 북 600부 포함)가 발행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메일 em7323@korea.kr이나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 공보과로 원고를 보내면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도움 필요한 이웃에 재능을 전하세요"

목포시, 민간 재능기부자 모집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재능을 전하세요"

목포시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민간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목포시는 "맞춤형복지 허브화 확대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공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 순수 민간재능 기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활성화해 주민 주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모집분야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배관설비, 도배·장판, 보일러교체 등)을 비롯해 이·미용, 이사 서비스 ,학습지원, 영화·도서 지원 등이다. 시는 모집한 민간재능기부자를 오는 2018년 맞춤형 복지 허브화 사업 전면 실시에 대비해 인재풀로 관리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율도·달리도·외달도 상수도 공급 사업 '첫발'

해저관로 매설공사 용역 발주…2020년 완공 목표

목포시 관내 섬 지역 주민들이 꿈에 그리던 수돗물 보급을 위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유달동 도서지역인 율도·달리도·외달도 283세대 584명의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해저 3.8km와 육상 7.8km 등 총 11.6km에 걸쳐 관로를 매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140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며, 재원은 2017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에 따라 매칭비율 7대3(국비 98억과 시비 42억원)의 비율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 수도과는 지난 3월 전남도 계약심사와 시 일상감사를 마치고 4월 사업 수행능력 평가(PQ)와 함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용역을 발주했다.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달동 관내 섬 지역 주민들의 물 걱정이 사라져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관광 목포의 선두적 역할이 기대되는 외달도 상수도 보급은 그동안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 온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역사적인 일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청정도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완성되면 오랜 세월 식수난을 겪어 온 섬 지역 주민들의 물 걱정이 사라져 도서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달 중으로 외달도·달리도·율도 등 도서지역 물탱크 5개소에 대한 청소도 실시한다. 시는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해 저수조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 제거, 미생물 번식방지를 위한 소독세정 등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우수기 대비 방조제 안전 점검
자전거도로 4곳도 일제 정비

목포시가 우수기에 대비해 5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방조제 안전점검과 자전거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율도 2곳, 달리도 3곳, 고하도 3곳, 대반동 1곳, 내화촌 1곳 등 10개소 총 연장 6,370m의 방조제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과 토목계 직원들로 점검반을 꾸려 방조제 제당 누수, 배수갑문 작동, 세굴상태 등을 조사한 후 보수가 시급한 곳은 사업비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6월말까지 모든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또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교육로(영흥고 주변), 평화로(평화광장 주변), 통일대로(홈씨씨 주변), 용해지구로(포미주공 삼거리) 등 4개소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행정 신뢰도 높이기 친절도 평가

전 부서 대상 15일부터 한달간

목포시가 전 직원의 친절 마인드를 함양시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도 평가에 나선다.

목포시는 7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위해 본청·사업소·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1개월 동안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도 평가는 외부 리서치 전문 기관에 의뢰해 400명을 표본 추출해 전화 응대 태도·업무 인식·신속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시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등 상위 6개 부서를 시상하고 하위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황용 목포시 감사실장은 "외부 설문조사기관의 객관적 측정 데이터를 근거로 우수부서를 시상하게 되면 선정된 부서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공직사회 친절 경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